

무등리그 8강 확정... 무르익어가는 사회인야구 가을잔치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파트너스·센프렌즈, 콜드승
상무스타치과병원, 시간 제한승
카멋진님, 라온베이스 꺾고 막차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무등기의 무등리그 8강팀이 가려졌다.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무등리그 16강전을 펼쳤다.

앞서 에어패스 파죽지세, 시원병원, 자연환경, 금호해리케인이 8강 티켓을 확보했고, 17일에는 파트너스, 센프렌즈, 상무스타치과병원, 카멋진님이 8강에 진출했다.

파트너스는 광주병원브라더스를 11-1, 4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1회 1점씩 주고 받은 뒤 2회말 파트너스가 대거 6점을 뽑으면서 분위기를 끌고왔다. 선발 김영복이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팀 승리를 지켰다.

타석에서는 박준용이 멀티히트와 함께 2개의 도루도 기록, 2타점 2득점의 활약을 했다.

센프렌즈는 전남대OB와의 경기에서 13-5, 5회 콜드승을 이뤘다.

전남대OB 선발 장경손이 1회부터 7실점을 하면서 흔들렸다. 초반 난조에도 장경손이 5회까지 마운

드를 지켰지만 승리는 센프렌즈의 차지였다. 센프렌즈 선발 조준 역시 5회까지 공을 던지며 5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승리투수가 됐다.

원포인트이엔지와 맞붙은 상무스타치과병원은 16-9, 5회 시간 제한승을 거뒀다.

초반 싸움에서는 원포인트이엔지가 앞섰다. 1회 2점을 만든 뒤 2-3으로 역전된 2회에는 4점을 보냈다. 하지만 3회 상무스타치과병원이 8점을 폭발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타석에서 3안타 활약을 한 상무스타치과병원의 장재혁이 5회에는 투수로 나와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KIA에서 활약했던 김지성이 원포인트이엔지 유니폼을 입고 담장을 넘겼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바랐다.

무등기 마지막 8강 티켓은 카멋진님에게 돌아갔다. 카멋진님은 라온베이스를 상대로 9-5 역전승을 거뒀다.

1회 2실점을 한 카멋진님이 3회에도 2실점을 하면서 1-4가 됐다. 하지만 4회 4-4로 승부를 돌린 카멋진님은 6회 대거 5점을 보태면서 역전승을 거뒀다.

김상수가 선발로 나와 6이닝을 4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한편 광주일보사·전남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한다. /김여울 기자 wool@

◇ 무등기 1-2주 차 경기 전적 (무등리그 16강전)

- ◆1경기 (4회 콜드)
에어패스 파죽지세 2425-13
조선대 풀카운트 0100-1
▲승리투수 : 이창수 ▲수훈선수 : 장택진 (2안타 2도루)
- ◆2경기
ARE winds 0000400-4
시원병원 302200X-7
▲승리투수 : 임진우 ▲수훈선수 : 김다원 (첫 홈런)
- ◆3경기 (7회 승)
투어채널이저스 0000000-0
자연환경 1111111-7
- ◆4경기
태평화물운동 000340-7
금호해리케인 033001-7 (추첨승)
- ◆5경기 (4회 콜드)

- 광주병원브라더스 1000-1
파트너스 1631-11
▲승리투수 : 김영복 ▲수훈선수 : 박준용 (2안타 2타점 2득점 2도루)
- ◆6경기 (5회 콜드)
전남대 OB 00302-5
센프렌즈 70312-13
▲승리투수 : 조준
- ◆7경기 (5회 시간 제한승)
원포인트이엔지 24120-9
상무스타치과병원 31804-16
▲승리투수 : 박성관
- ◆8경기
라온베이스볼 2020001-5
카멋진님 001305-9
▲승리투수 : 김상수 (6이닝 4실점)



“도루 성공~” 17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제10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16강전에서 센프렌즈의 김현창이 1회말 1사 1루 김경호 타석 때 전남대 OB를 상대로 도루를 시도, 성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책골 → 결승골’ 박찬용에 울고 웃은 전남

K리그2 수원전 4-3 승리

전남, 리그 6위서 3위로 점프

전남드래곤즈 박찬용이 K리그2를 들었다 놓았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자책골을 기록한 박찬용은 후반 43분 숨 막힌 승부를 4-3 승리로 마무리하는 헤더를 장식했다.

전남은 1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른 수원FC와 2020 K리그2 24라운드 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6위에서 3위까지 점프했다.

37분 동안 6골이 터지는 박빙의 전반전이 전개됐다. 점수는 3-3이었지만, 사실상 '5골'의 주인공이 전남이었다.

전천히 공을 돌리며 예열을 하던 수원이 역습으로 전남 진영으로 돌진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안병준이 중앙으로 찌른 패스가 박찬용의 무릎을 맞고 전남 골대로 들어갔다.

전반 9분에는 전남이 자책골에 웃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질주한 이유현이 중앙에 있던 이종호에게 공을 보냈다. 낮게 뜬 공이 이종호의 발사이로 흘렀고 수원 이지훈의 발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됐다.

자책골로 1점씩 주고받은 뒤 전반 중반 분위기는 전남이 주도했다. 전반 24분 에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은 이유현의 때서운 슈팅이 골키퍼 박배중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남이 바로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환호했다.

에르난데스가 띄운 공이 골키퍼를 지나 뒤에 있던 황기욱의 머리로 향했다. 황기욱이 그대로 공의 방향을 바꿔 수원 골대로 집어넣었다.

3분 뒤 환상적인 역습이 전개됐다. 골키퍼 박배중에게 공을 넘겨받은 추정호가 중앙에 있던 에르난데스에게 패스를 한 뒤 전력으로 달려 다시 공을 받았다. 그대로 문전으로 향하며 상대 수비수를 끌어

낸 추정호가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이후권에게 패스를 했다. 그리고 이후권이 오른쪽 슈팅으로 팀의 세번째 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연달아 골키퍼 박배중이 고개를 숙였다. 전반 31분 느긋하게 볼을 처리하던 박배중을 향해 수원 라스가 달려들었다. 당황한 박배중이 넘어지면서 손으로 공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마사가 공을 뺏어 주인 없는 빈 골대로 향했다.

35분에는 상대의 힘 없는 슈팅을 발로 막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공을 멈추지 않고 밀어내면서 라스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몸으로 라스를 저지하다 경고 카드를 받았다. 안병준이 페널티킥 커러로 나서 골을 기록하면서 허망하게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 연발로 다시 긴장감 가득해진 수원종합운동장, 후반 43분 마침내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프리킥 상황에서 김현욱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공을 띄웠고 박찬용의 머리를 맞고 바운드 된 공이 그대로 수원 골대로 들어갔다.

전남의 승리를 확정하는 골이 터진 순간 6개의 구단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날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순위가 요동치게 되는 상황이었다. 득점에서 뒤져있던 제주가 승점 3점을 챙기며 1위로 올라섰고, 3위 서울이랜드는 무승부에 그쳐 2점 차로 전남의 가시권에 있던 상황. 그리고 4위 경남과 대전은 나란히 패배를 기록하면서 전남과 동행이었다.

박찬용의 결승골이 터지자 일단 골키퍼 박배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1위를 지킨 제주는 웃었다. 3위를 내준 서울이랜드와 한 계단씩 순위가 밀린 경남과 대전은 울상이 됐다.

한편 K리그2 광주FC는 18일 진행된 전북현대와의 25라운드 경기에서 1-4로 지면서, 전북 원정 첫 승 달성에도 실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 8이닝 불꽃투... 선동열 넘고 통산 147승

KIA-LG전 4-0... 시즌 11승

양현종, KBO 리그 다승 4위

최원준, 결승타 맹활약

마지막 잠실 원정 '유종의 미'

양현종이 8이닝 무실점 호투로 '호랑이 군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15차전에서 4-0 영봉승을 거뒀다. 앞선 잠실 원정에서 2승 13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한 KIA는 올 시즌 마지막 잠실 원정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양현종이 설욕전 선발에 섰다.

KIA는 16일 0-9 영봉패를 당한 뒤, 17일에도 마지막 9회 상황에서 상대 호수비에 땅을 치면서 8-11패를 기록했다.

스윙 위기에서 양현종이 올 시즌 가장 오랜 시간 마운드를 지키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양현종이 1회말 2사에서 이형종에게 좌측 2루타를 맞았다. 김현수에게 볼넷까지 내줬지만, 채은성을 1루 땅볼로 잡았다.

실점 위기를 넘긴 양현종이 2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3회 2사에서 오지환에게 두 번째 안타는 내줬지만 빠른 견제로 스타트를 끊은 오지환을 잡아냈다.

4회초 상대의 실수로 KIA가 득점에 성공했다.

1사에서 김태진이 이민호를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김민식의 3루 땅볼 때 3루수 김민성이 2루수 정주현에게 공을 뿌렸지만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1사 1-2구가 됐다.

유인상이 헛스윙 삼진으로 몰라나 투아웃 상황

에서 박찬호가 볼넷을 얻어내 분위기를 살렸다.

그리고 최원준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2점을 먼저 만들었다.

득점 지원을 받은 양현종이 4회와 6회 각각 채은성과 오지환에게 2루타는 맞았지만, 추가 진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8회 양현종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양현종이 첫 상대 유강남을 3루 땅볼로 잡은 뒤 정주현을 좌익수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올 시즌 자신의 최다 이닝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올 시즌 7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기가 두 번에 그쳤던 양현종은 흥창기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시즌 처음 8이닝도 채웠다. 양현종의 성적은 8이닝 4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

타석에서는 최원준이 KIA의 자존심을 살렸다.

앞선 연패에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투타자 역할에 충실했던 최원준이 4회 2타점 적시타에 이어 7회 다시 안타를 기록했다.

2-0으로 앞선 7회 1사에서 좌전안타로 출루한 최원준은 이어진 김선빈-터커-최형우의 3연속 볼넷으로 홈까지 들어오면서 득점을 올렸다. KIA는 7회 나지환의 좌익수플라이로 1점을 보태 4-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NC원정에서 7년 연속 10승을 이루며 선동열의 최다승(146승 40패 132세이브·평균자책점 1.20)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던 양현종은 이번 승리로 KBO 리그 다승 단독 4위가 됐다.

양현종의 통산 성적은 147승 93패 9홀드, 평균자책점 3.79다.

양현종 위에는 이강철(152승 112패 52세이브·평균자책점 3.29), 정민철(161승 128패 10세이브·평균자책점 3.51), 송진우(210승 153패 103세이브·평균자책점 3.51)가 버티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